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2년 표어 §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마 22:37-40)

十 행동 지침十

- 1. 다시 말씀 앞에(Reconfirm)
- 2. 다시 교회로(Rebuild)
- 3. 모두 함께 기쁨으로(Rejoice)

발행인 : 손달익 목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수전절의 변론 II

(요 10:22-26)

이중윤 원로목사



예수님께서서는 공생애가 거의 끝날 무렵의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2. 예수님의 답변

(1) 말한 것을 믿으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요 10:25)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앎이라 하였더라”(요 4:42).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먼저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의 여인의 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의 말을 듣고 쫓아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비로소 믿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요 4:50). 왕의 신하의 가정은 가버나움에 있었고 예수님은 혼인잔치가 열렸던 가나에 계시는데 신하가 가나에까지 쫓아와서 죽을 병에 걸린 아들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은 신하는 돌아가는 길에 집에서 오는 사람들과 만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시간에 아들이 살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에는 듣고 믿는 것과 믿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듣고, 믿고, 가는 3단계입니다. 복음을 들을 뿐 아니라 듣고 믿으며, 믿으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간다’는 것은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2) 행한 것을 믿으라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요 10:25하)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행동이 곧 증거인데 무엇을 더 바라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의 큰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요 2:1-11)
 -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 고침을 받은 일(요 4:46-54)
 -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신 일(요 5:1-16)
 - 오병이어로 오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신 일(요 6:1-14)
 - 물 위로 걸으신 일(요 6:15-21)
 -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일(요 9:1-41)
 -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일(요 11:1-44)
-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

요”(요 20:31 상). 사도 요한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자연기적과 치유기적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연의 주가 되심을 보여주시는 자연기적은 물 위로 걸어가신 일이나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일 또는 오병이어의 기적 등이 있고, 생명의 주가 되심을 보여주시는 치유기적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문득 마음에 감동이 생기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지 않습니다.

기적은 계시의 사인(Sign)입니다. 계시를 주시기 위하여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는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되었으며 더 이상 다른 기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병든 사람이 낫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계시의 사인은 아닌 것입니다. 진리의 계시판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는데 하나는 회개와 또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 핑계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불평과 핑계를 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말하신 것과 행하신 것을 듣고 보아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3.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요 10:26)

예수님은 말씀하실 수 있는 모든 것과 행하실 것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 유대인을 감화시키지 못했거나 유대인이 미련해서가 아니라 다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는 언제든지 이와 같이 간단 명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양으로 불러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장로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놀라운 은혜요, 사람의 편에서 생각하면 기적입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행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도 제 길로 가는 가룟 유다와 같이 되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며 믿음으로 사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광복 77주년

한국 교회와 광복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 지배에서 해방되었다. 1945년의 첫 광복절은 자유와 해방의 빛을 다시 회복한 기쁨의 날이었다. 일본 천황의 항복 선언이 라디오 방송으로 알려지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쁨에 겨워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자유를 알리는 종소리는 교회에서도 널리 울려 퍼졌다. 그러나 뜻밖에 주어진 자유와 해방은 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고 여기저기서 폭력성을 띤 불미스런 일들이 불거졌다.

8·15광복의 그날에 경상북도 풍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 흰옷 입을 군중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저마다 광복의 기쁨으로 목이 터져라 만세를 부르며 돌아다녔다. 그리고 군중들은 일본의 신사(神社)가 있는 관공서로 갔다. 그들의 손에는 도끼를 비롯하여 각종 연장이 들려있었다. 그들은 경찰 지서, 풍기초등학교, 풍기면사무소에 있는 신사를 도끼로 찍어내고 삼과 팽이로 부수고 발로 짓밟았다. 8·15광복 직후에 한국 장로교회는 일제 식민지배 시대의 잔재를 청산하려다가 전혀 뜻하지 않은 논쟁과 분열에 휘말렸다.

그 해 8월 17일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저항하여 평양의 감옥에 갇혀 있던 교역자 등 20여 명이 출옥했다. 그러나 50여 명은 이미 옥사한 후였다. 출소한 이들은 꿈속에서도 그리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않고, 평양 산정현 교회로 모였다. 거기서 약 두 달 동안 지내며 신사참배 굴복과 더불어 무너진 교회의 재건에 관하여 논의했다. 그리고 9월 20일 교회 재건을 위한 기본 원칙을 발표했다. 부산에서도 ‘출옥 성도’들을 중심으로 ‘경남재건노회’(1945. 9. 8)가 모였다. 8·15광복과 더불어 교회가 새롭게 출발을 하려면 지나온 과거 곧 신사참배 강요에 굴복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이 과제를 논의했다. 1946년 6월에는 남한의 교회만 모인 ‘남부총회’에서 신사참배 문제가 거론되었다. 총회는 1938년

총회의 신사참배 결의를 ‘취소’했고 아울러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날에 해당되는 주일 하루를 ‘통회자복일’로 정해 이를 시행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 정화를 요청하는 교인들이 보기엔 그저 눈가림에 불과했다. 이들은 “최소 한두 달 동안 회개하는 기간을 갖자”고 요구했고, 총회는 그 기간을 단 하루 동안만으로 정했다. 더욱이 총회는 신사참배에 굴복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징계조치에 대하여는 언급조차 없었다. 교단의 논쟁이 파도처럼 크게 일어났고, 1950년대에 장로교회가 세 차례나 분열되었다. 그 결과 4개의 장로교회 교단이 생겼다.

8·15 광복의 기쁨은 잠시뿐이었고 교회는 교회 분쟁과 교단 분열로 말미암은 고통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이렇게 분열된 장로교회는 반세기 이상 그 상태로 유지되거나 더욱 여럿으로 분열되었다. 분열과 갈등은 예나 지금이나, 교회나, 세상이나, 언제 어디에서나 존재하고 영원히 풀리지 않는 문제로 남아있다. 아마도 인간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올해는 광복 77주년이 되는 해이고 새 정부가 들어선 역사적인 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진영과 이념, 동서의 갈등으로 혼란스럽기만 하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촉발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좀처럼 종식되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은 민생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으니 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77년 전 이 나라, 이 민족에 해방의 기쁨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는 제발 교회만이라도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세상 가운데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편집부)

8·15광복의 기쁨은 잠시 교회 분쟁과 교단 분열로 고통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세상 가운데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광고

신속한 교회 행정을 위하여 이사 등 주소 변경 시는 즉시 사무국이나 교구목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욱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권동영 김종훈 김재용 김요한 이상민 한지원 문영훈 이준우 정건 경건웅 이강현 최윤학 이진우 유동연 허성강 장하람 백승규 중위 황수지 소위 안지훈 중위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문창희 중사 김정균 소령

예배위원 모집

주일 1. 2. 3부 예배, 찬양예배 안내 위원
주일 1. 2. 3부 봉헌 위원을 모집한다.

* 문의 : 채교전 집사 (010-6444-2502)

식당이용 안내

· 배식 시작 : 오전 11시
· 배식 종료 : 오후 1시 10분
· 모든 식기 반납 : 오후 1시 25분

* 잔반을 남기지 마세요.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설거지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과 남을 배려하는 서울교회 교인들이 됩시다.

교회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에베소서 3:7)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교회가 회복되고 코로나19 사태가 조금 진정되면서 교회 내 각 부서에서 일꾼들을 찾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기쁜 마음으로 필요한 부서에서 봉사하며 은혜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은빛찬양대에서 찬양대원을 찾습니다



은빛찬양대를 함께 섬기실 성도님을 초대합니다.

은빛찬양대는 매달 첫째 주 수요일 1부 예배의 찬양을 담당하는 은혜와 기쁨, 감사가 넘치는 찬양대입니다.

교회 각 부서에서 열정을 다해 섬기셨던 그 믿음과 연륜 위에 찬양의 소명을 더 하신다면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교회에는 큰 버팀목이 될 뿐 아니라, 대원 개인에게도 기쁨과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65세 이상의 성도라면 누구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참으로 교회는 부흥하며, 역동적으로 사역하는 교회로 세워짐에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고 여러분을 초대하오니 부디 함께 찬양하시길 소망합니다.

10월 첫 주 40명의 대원이 모여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것을 위해 전 대원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길 원하는 성도는 은빛찬양대 대장 최광성 장로(010-3724-8422)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금요기도회 찬양팀원을 모집합니다!

살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예배들이 회복되고 있고, 주님의 은혜로 서울교회에 은혜가 넘쳐 흐름을 경험함에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서울교회는 추석이 지난 다음 주 금요일 (9월 16일)부터 금요기도회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금요기도회에서는 말씀

뿐만 아니라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에 찬양을 함께 인도해 나아가길 금요기도회 찬양팀원을 모집합니다.

성별, 나이, 직분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함에 열정이 있는 분이면 누구라도 환영합니다.

목소리, 악기 어떤 분야도 좋습니다.

찬송가뿐만 아니라 복음성가까지 다양하게

찬양하는 찬양의 시간에 함께 해 주세요!

서울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대치동을 넘어 온 세계에 넘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9월 16일부터 시작하는 금요기도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많은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찬양팀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담당 목사님인 장석남 목사님(010-7273-6352)께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 새가족부 교육을 마치고

주님께서 서울교회로 인도하신 바

김진수 성도(7교구)



지난 주일 새가족부 교육을 마친 성도들
(오른쪽부터 박상준 성도, 김진수 성도, 강인영 성도, 하은경 성도)

저는 미국에서 유학하는 동안 2010년에 처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대한민국에 돌아온 후 대전 중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2년 동안은 코로나로 인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현재 제 아내와의 결혼을 통해, 서울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새신자 등록을 하자마자 전도사님의 인도로 현 새신자 교육을 7월 첫째 주부터 임하게 되었고 현재 4주차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3주에 걸쳐서 첫째 주는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신앙고백을 하면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되고 주님을 증거하

게 되는 삶을 살게 될거라는 것을 배웠고, 둘째 주는 우리가 주를 만나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됨으로써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배웠고 비로소 영생을 얻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주는 예수님이 생명의 다리로서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교회에 대해서 아직 잘은 모르지만 주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한 바 주님께서 서울교회를 통해 저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쓰시고 어떻게 성장시키실지 기대가 됩니다. 서울교회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합니다.



반갑습니다 - 새가족부 교육을 마치고

나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축복과 구원받는 삶의 되기를...

오행미 성도(7교구)

8주 동안의 새가족 교육을 받으면서 그동안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박미라 전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귀에 쫄쫄 들어오게 강의해 주셔서 듣기 편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아직은 신앙생활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성경도 잘 모르고 기도할 줄도 잘 몰라 두렵기만 하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생

활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기도로 시작해 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살았던 생활에서 나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축복과 구원받는 삶의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직은 성경에 대하여 다 알지 못하고 성경의 말씀에 대한 의의심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말씀 안에서 생활하고 기도로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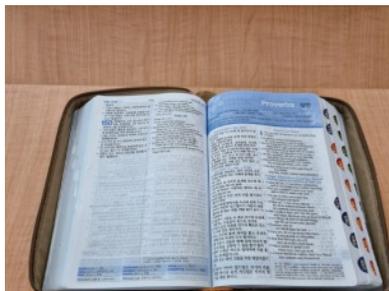
■ 식사 제공 : 교회 제공

2022 성경암송대회

11월 12일(토) 일반부 본선 / 11월 13일(주일) 교회학교 본선
잠언 1장 - 8장

2022년 성경암송대회 범위와 일자는 다음과 같다. 올해도 많은 성도들의 참여 바란다.

- 일시 : 11.12(토) 일반부 본선
11.13(주일) 교회학교 본선
- 범위 : 잠언 1장-8장
(4년간 잠언 전 장 암송)
- * 부별 대상 수상자는 11월 13일(주일) 찬양예배 시 암송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8월15일	월	렘 13-16		삼상 12-17	
8월16일	화	렘 17-20		삼상 18-23	
8월17일	수	렘 21-23		삼상 24-31	
8월18일	목	렘 24-27		삼하 1-6	
8월19일	금	렘 28-31		삼하 7-13	
8월20일	토	렘 32-34		삼하 14-19	
8월21일	주일	렘 35-38		삼하 20-24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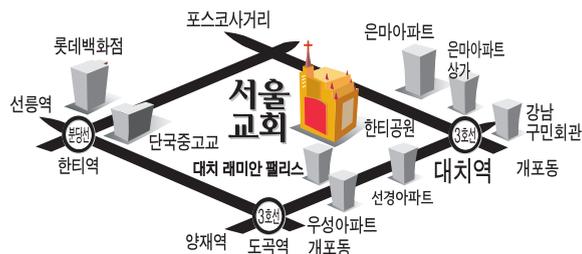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대한민국을 외세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애국애족의 한국 교회 영성을 이어가는 성도 되게 하소서
2. 홍수와 각종 재해 지역의 피해 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지고, 수재민과 피해 입은 이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은혜 내려주소서
3.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세계적인 경제 불황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우크라이나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곳의 전쟁과 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